

“정의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가 필요한 시대”

컬처 & 피플

시인·명예교수 민용태



“화순 적벽에서 세계 시인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방랑시인 김삿갓이 말년을 보낸 곳에서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면 제격이지요. 적벽을 세계 시인들의 성지로 만들어야 해요.”

민용태(71) 고려대 명예교수는 적벽이 42년만에 개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화순 청풍면 차리 출신인 그는 “시심(詩心)을 키운 고향에서 세계 시인대회를 여는 게 꿈”이라고 했다. 각종 시인들을 화순으로 불러모아 적벽 등 화순의 풍광을 주제로 즉흥시·연작시, 정형시 짓기 등 문학행사를 하자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자택에서 만난 민 교수는 예전 TV에 비친 모습 대로 대책 없는(?) ‘남만주의자’로 살고 있었다. 호탕한 웃음과 결속한 육담을 어찌나 구수하게 풀어내는 지 그의 집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한 막걸리집 같은 분위기로 변했다.

지금이야 대학교수들이 TV 단골손님이 됐지만, 민 교수는 보수적인 대학사회를 박차고 나와 대중들을 만난 1세대 교수 방송인이다. 공전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TV예능프로 ‘양심 냉장고’에서는 코미디언을 웃기는 교수로 사랑받았다.

민용태 교수는 워낙 빼어난 예능감(?)에 가려 시인이자 문학가로서의 성취, 대학 교수로서의 다소 손해를 봤다. ‘스페인 문학탐색’, ‘스페인 중세·황금세기 문학’, ‘돈키호테 열린 소설’ 등을 펴낸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문학교류사라도 의미가 있는 그의 이력은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현지 문학상을 받고 등단한 글로벌한 시인

화순군 청풍면 차리 출신 유학 중 스페인서 시 등단 각박한 문명사회에선 시가 구원의 목소리 돼야

이라는 점이다. 스페인마차도 문학상을 받고 등단해 시인이 된 것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최하다. 스페인 왕립 한림원 종신위원이기도 하다.

“운이 좋았어요. 스페인문단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본명을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규정상 반드시 가명으로 써야합니다. ‘살리만까’라는 가명으로 응모했는데 ‘우화’라는 작품이 우연히 당선됐어요. 시상식에 참석하자 당선자가 동양인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요. 최근 시선집 ‘바람의 강 노래’ 2판을 현지에서 출간했습니다.”

평생 시를 써온 민 교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대화로 착각하는 세대에서, 시인들마저 비생명적, 비인간적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진단한다. 기법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데 시인의 숨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각박한 문명사회에서 시가 구원의 목소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노래한 타고르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담은 시를 쓰고 싶어요. 요즘시를 보면 서정의 깊은 울림이 있는 정지용 선생의 ‘향수’ 같은 시가 더 기

리워져요.” “사랑 예찬론자’인 그는 최근에는 세계적인 사랑시와 자작시를 묶어 ‘시에서 연애를 꺼내다’라는 시집을 펴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국내외 시인들의 절절한 애가(愛歌)를 해설한 묶음이다.

민 교수는 문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온 양심으로 통한다. 마광수 전 연세대교수가 소설 ‘즐거운 사랑’로 외설논란에 휘말려 투옥되자 적극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문인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돈키호테 때문에 무작정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서울대 독문학과를 염두에 뒀는데 3학년 1학기 때 광주 YMCA에서 열린 스페인어 공개 강의에 간게 인연이 됐다. 그가 10년 공들여 번역한 돈키호테(전2권)는 11쇄나 찍었다. 상세한 주해와 우리말 번역으로 인해 자타가 공인하는 번역서다.

“돈키호테가 뛰어난 것은 시각의 광장입니다. 요즘과 같이 돈과 물질 등 보이는 것만을 최고로 치는 시각중심적인 현상이요. 그런 상황에서 안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살려내자고 하는 돈키호테는 당연히 비웃음을 샀죠. 여기에 근대적인 정신이 있어요. 돈키호테는 양심, 사랑, 정의 등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다시 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 한국에 돈키호테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돈키호테를 읽어야 할 시점이에요.”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5 음악계 화려한 클래식 향연

로열 콘서트하바우 등 세계 정상 오케스트라 줄줄이 내한

2015년 굵직하고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영국의 클래식 전문잡지 ‘그라모폰’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꼽은 네덜란드 로열 콘서트하바우를 비롯해 지휘 거장들이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줄줄이 내한한다.

우선, 독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3월13일)이 한국을 찾는다. 폴란드의 명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의 지휘로 정통 독일 사운드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공연은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프랑크 페터 침머만의 협연으로 더욱 빛난다.

이어 같은 달 25~26일에는 ‘클래식 음악의 미래’로 불리는 베네수엘라 빈민가 출신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로스엔젤레스(LA) 필하모닉을 이끌고 무대에 선다. 이어 같은 달 20~21일에는 영국 BBC 필하모닉이 찾아온다. 11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466년 전통의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가 이 악단의 수석 객원 지휘자 정명훈과 함께 무대(18~19일)에 선다.

같은 달 21일에는 독일 명문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이 세 번째 내한공연을 하고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스투니아 출신의 지휘자 파보 예르비가 3년 연속으로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을 이끌고 내한(16~18일)한다. /김미은기자 mekim@연향뉴스

광주박물관, 19일 ‘신창동유적 제사와 의례’ 심포지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박물관 내 교육관에서 ‘광주 신창동유적의 제사와 의례’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연구자들이 참석해 국내 최대 농경복합유적인 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의 중요성을 집중조명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유적에서 출토된 새모양토제품, 악기, 바람개비문양칠기, 상형토기와 각종 미니어저 등을 통해 밝혀낸 옛 신창동 사회의 제사와 의례 문화를 살피게 된다. 심포지엄은 3부로 구성되며 ‘광주 신창동유적의 도자농경의례’(조현종 국립광주박물관 관장), ‘한국 세시풍속의 전개와 농경의례’(나경수 전남대 교수), ‘중국의 고대 동고/도자농경의례’(유선영 중국철강성박물관), ‘일본열도에서의 도자농경의례’(구와바라히사오 천리대학 문학부) 등 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62-570-7035.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